

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
강원도출연작품

# 江陵대보름農樂



때 : 1981. 10. 22 ~ 24  
곳 : 인천공설운동장

## 해설

그 옛날 滅國(예국)의 古都인 江陵은 嶺東地方 生活圈의 中心地였다.

또한 江陵은 우리의 久遠의 母像인 申師任堂과 그의 아들이며, 當代의 碩學 大賢 李 栗谷 先生이 탄생한 烏竹軒을 비롯하여, 閔東八景의 第一景인 鏡浦台가 있으며 大閔嶺 國師城隍祭가 行하여 지는 五月 端午祭와 官奴假面戲가 열리는 文化와 民俗의 高장이다.

이와같은 歷史的 背景을 갖고 있는 江陵地方에는 굿 풀이가 中心을 이루는 독특한 形態의 農樂놀이가 傳承되어 오고 있으니, 이것이 바로 「대보름 農樂」이다.

內陸地方과는 달리, 山과 海岸을 끼고 있는 嶺東 特有的 農耕文化속에서 움터난 이 高장의 農樂은 경쾌하고 多樣한 가락 中心의 南쪽地方의 農樂과는 大조적으로 그 가락이 比較적 單調롭고 靜的이며 놀이의 活動반경이 좁기는 하나, 農謠와 굿 풀이 등이 조화되어 꾸밈새 없고 素朴한 土色的인 맛이 特색이라 하겠다.

江陵 「대보름 農樂」의 특징은 그 놀이의 形態가 演戲 中心이 아니라, 農式 中心의 農事풀이가 嶺東地方의 傳統 農謠와 함께 펼쳐지고 豐農을 祈願하는 民間信仰인 굿 풀이가 햇불놀이 속에 이루어 지며 여기에 陣풀이가 곁들인다.

이 「대보름 農樂」의 構成은 旗手를 先頭로 상쇠를 비롯한 쇠잡이 4名, 징 4名, 북 4名, 장고 4名, 새납 2名 등 18名の 풍물과 소고 12명, 법고 12名, 무동12名, 그리고 햇불놀이 30名 등 모두 90余名으로 構成 되었으며, 그 외에 소 물이꾼과 農機具잡이 등이 등장하여 놀이를 펼친다.

먼저 部落에 傳統적으로 모셔 오는 守護神인 城隍堂에 제사를 지내는 城隍 굿과 堂 맞이 굿, 황덕 굿 등의 굿 풀이와 멍석 말이·논 갈이·논 삶기·법씨 뿌리기·모 판 누르기·모 찌기·논 갈이·모 내기·김 매기·풀 베기·낫 갈기·점심 먹기·담 배 피우기·벼 베기·태 치기·방아 찧기 등의 農式놀이에 이어 팔진도 당산진 등의 陣풀이·동고리 받기·열두발 상모·햇불놀이 등이 12채 36가락에 맞춰 興 겹게 進行 된다.

놀이 과정 中에서 특이 한것은 김 매기와 벼 베기를 할 때 〈오독매기〉 〈싸대〉 등의 農謠가 힘겨운 農事 일에 시름을 달래 준다.

이 嶺東地方 固有的 「대보름 農樂」은 每年 陰歷 正月 보름날에 行하여 오고 있는 農樂놀이로서 右老들의 考證을 土台로 이를 整理한것이다. 그 간 破壞되고 變形된 部分의 原形을 찾아 다듬기 위해 나름 대로 애를 썼다.

이제 氣力이 쇠진하여 起動 조차 힘든 그들의 協助가 없었던들 오늘의 再現이 不可能 하였음을 밝혀 둔다.

## 농악과장

1. 본부석인사
2. 관람석인사
3. 명 석 말 이
4. 발맞추기
5. 소고황덕굿  
(소고들의 굿놀이)
6. 법고황덕굿  
(법고들의 굿놀이)
7. 무동 황덕굿  
(무동들의 굿놀이)
8. 불 놀 이  
(옛부터 강릉시의 초당과  
송정에서 정월대보름날  
행해지던 불놀이 농악으로  
농악가락에 맞춰 불싸움을  
벌여 부락의 풍년을  
기원하는 독특한 햇불  
농악이다.)
9. 가 래 질
10. 논 갈 이
11. 논 삼 기
12. 모자리 누르기
13. 법씨치기
14. 피고르기
15. 모 찌 기
16. 모 심 기
17. 김 매 기  
(강릉지방의 농요오독  
데기가 함께 불려진다.)
18. 점 심 먹 기
19. 담배피우기
20. 새 쫓 기
21. 낫 갈 기
22. 벼 베 기
23. 벼 광 이 기
24. 타 작 하 기
25. 방 아 쫓 기
26. 팔 진 도
27. 지 신 밟 기
28. 동고리받기
29. 여 흥  
(개인놀이)
30. 본부석인사
31. 관람석인사
32. 퇴 장

